

광양시 위장전입으로 인구 늘리기 '물의'

공무원 개인 할당·실적보고회 개최 등 무리한 추진 논란 "출산 장려책 아닌 인구 빼가기로 단체장 지적 쌓나" 비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광양시가 불법 위장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개인 할당을 주고 실적보고회까지 여는 등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적 압박에 공무원들이 자인을 자신의 집 주소로 옮겨 놓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는 관련 통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보육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혼선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동안 광양시로 전출한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같은 주소로 전입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 27세대 30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광양읍의 한 아파트에는 8세대 9명, 중마동의 한 아파트는 6세대에 10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2세대, 많게는 8세대가 한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사실상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특히 일부 주소는 수년째 반복적으로 위장전입지로 활용되고 있고,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이렇게 연말에 빠져나간 1000여명은 이듬해 2월까지 다시 순천시로 주소지를 옮기고 있다는 것이 순천시의 설명이다.

이처럼 왜곡된 통계는 광양시가 자랑하는 출산장려시책과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등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실적으로 포장돼 활용되고 있다.

또 이 같은 인구 통계는 보육 정책 등 인구 관련 정책 수립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타 도시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광양시로 전입을 강력하게 유도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지역 인구 늘리는 것은 의무인 만큼 올해도 과감한 혜택을 줘서 인구 늘리기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 인구 빼가기로 지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어 입법 등 강력한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소 제2열연공장 합리화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스위칭(Switching)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양제철 제2열연공장 최신 설비 교체 고급강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김학동)가 제2열연공장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며 고급강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급강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광양제철소는 수요산업 부진,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및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영환경 속, 고부가가치 World Premium(이하 WP)제품 생산 증대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합리화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된 공사를 통해 광양제철소 2열연공장은 노후 제어설비나 모터(motor), 배관, 최종제품인 열연코일 이송장비 등을 최신식으로 재탄생시켜 공장 전반의 설비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960여억원이 투자된 이번 공사를 통해 광양제철소는 2열연공장의 주력 제품인 산세강판(PO재)과 두께 엄격재의 불량률을 현 수준 대비 30% 이상 개선하며 안정적인 WP제품 생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2열연공장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학동 광양제철소장을 비롯해 강용구 노경협의회 대표, 설비 공급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학동 광양제철소장은 "이번 합리화를 통해 2열연공장은 WP제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을 확보하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됐다"라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열정으로 생산된 고품질 WP제품과 함께 포스코 Next 50년의 중심이 되어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제철소 2열연공장은 1990년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누계 1억 1800만 t, 지구 둘레 105바퀴 상당의 열연코일을 생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매화마을 가는 길목 명품 가로수길 준공



섬진강변 매화마을 입구인 다압면 신원 둔치 제방도로에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됐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매화축제가 열리는 섬진강변 매화마을 입구인 다압면 신원 둔치 제방도로에 명품 가로수길을 준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가로수길은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총 사업비 7억 9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는 매화마을로 가는 길목 약 1km에 신원제방 제내지(하천 제방 안) 쪽으로 우리나라 고유 전통수종인 푸조나무와 상록수인 홍가시나무를 조화롭게 심었다.

특히 이번에 조성한 명품 가로수길이 둔치주차장에 주차해 매화마을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에게 섬진강변과 어우러진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좁은 인도와 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흐름 방해와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으나 가로수길 조성으로 내년 봄 축제기간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명품 가로수길을 잘 가꿔 사계절 가족과 연인이 함께 찾는 대표적인 감성관광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한 명품 가로수길이 섬진강변 라이더와 매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힐링공간으로 사랑받게 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

섬진강뱃길복원사업이 마무리 되면 망덕포구에서 다압면 일대까지의 섬진강 하류지역이 관광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은 섬진강의 천혜 자연관광자원을 활용한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만들기 위해 광양시와 하동군, 구례군이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85억원을 투입해 나루터 복원 3개소, 수변쉼터, 강수욕장, MTB체험장, 가로수길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최근 특허공법 심사를 마친 망덕산-배알도수변공원 간 갯와이어 설치 등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학부모들 예술중 설립 기대감 높다

62% "창의예술고 부설중 보낼 의향"

광양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예술중학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개교 예정인 공립(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 내에 부설 예술중학교 설립에 관한 예비 수요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양시에서 지역 초등학교 27개교에 의뢰해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2~5학년 학부모 6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3707명으로 61.7%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항목은 예술고등학교 건립과 예술고등학교 부설 중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예술 전문 부설 중학교 설립 시 자녀를 보낼 의향이 있는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



(가칭)창의예술고등학교 조감도.

너를 보내겠다는 설문에서는 62.3%인 2311명의 학부모들이 보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2020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가칭) 창의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34.5%인 1278명이 매우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38.6%인 1432명이 대체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은 88명으로 조사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예술중학교 설립에 대한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예술중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에 건의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항 배후단지 대표자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개선방안 모색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과 입주기업 대표들이 간담회를 갖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이하 공사)는 지난 19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30여개사 대표이사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사는 참석자들에게 배후단지 활성화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배후단지 물류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 광양항 배후단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차민식 사장은 "국내외 각종 경제지표가 급랭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 지혜롭게 대처해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사에서도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올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에서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전년동기(28만8000TEU) 대비 46% 이상 증가

한 42만5000TEU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과의 건설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2019년에는 기업유치 55개사, 처리물량 50만TEU, 고용 창출 2000명을 목표로 노력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다 타면 출발 X
다 매면 출발 O

국민 안전을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까지 확대/시행됩니다

*일반 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9월 28일,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손해보험협회